

한국의 일본 지역학의 문제점

진창수*

I. 한국에서의 일본학의 문제점 II. 연구현황 III. 일본학 교육의 문제점 IV. 일본학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한국에서의 일본지역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약을 주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아직도 일본학은 일어일문학과 중심의 좁은 범위의 일본학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반론적인 일본학이 발전하기보다는 특수성에 치우치는 문화론과 한일관계의 연구가 주축을 이루어져 왔다. 둘째 민족주의 반일배척의 논리가 연구의 영역에 간접적으로 투영되어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연구 영역면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각각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영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범위에 걸치는 전문적 연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이슈에서는 아직 지역학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향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의 일본학, 일본학 연구, 일본학 교육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1. 한국에서의 일본학의 문제점

한국에서 일본지역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약을 주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아직도 일본학은 일어일본학과 중심의 좁은 범위의 일본학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일반론적인 일본학이 발전하기보다는 특수성에 치우치는 문화론과 한일관계의 연구가 주축을 이루져 왔다. 한국에서 일본학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초기의 일본학 관련 학과가 대부분 어문계열에 속하는 일어일본학과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설치되어 그곳을 중심으로 일본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대학제도 밖에서의 저널리즘이나 재야학자, 작가 등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왔으며, 대학 내의 기존 학과 내에서도 개별적 주제별로 연구와 강의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연구를 하나의 독립적인 전공학과로 분리하여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한 것은 일어일본학과가 효시이다. 대학에서의 이와 같은 제도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본 전공자는 자연히 어학 또는 문학분야에서 주로 배출되었으며, 이들의 관심은 인문학적인 지식과 특수론적인 일본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났다.¹⁾

둘째, 민족주의 반일배척의 논리가 연구의 영역에 간접적으로 투영되어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1980년 이후, 일본연구의 양적·질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논의는 저널리즘에 의한 ‘일본은 있다’, ‘일본의 없다’의 논쟁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계에서도 한편에서는 일본을 제국주의적이고 팽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1) 이에 따라 지역학과로서의 일본학과라고 할 때 그것이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따라 학과 교육의 성격과 비중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으로 파악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본을 찬양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형성되어 객관적인 일본학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배척의 단계, 이해의 단계를 거쳐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논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한국의 일본정치연구와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논해보기로 한다. 이 글은 1998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행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연구지원센터(Japanese Studies Supporting Center,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하 JSSC)의 설문조사 「한국의 일본연구 1998」의 결과와 세종연구소에서 조사한 2005년 일본학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II.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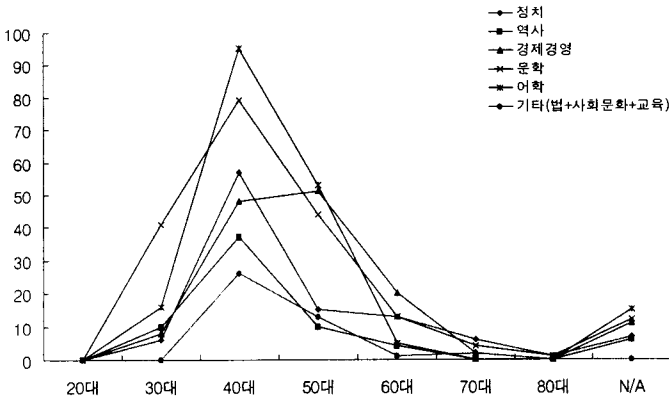
1. 연구자

전문 연구자 충원정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일본정치연구 발전단계의 시기는 약 세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45년 해방부터 1970년까지로서 연구의 맹아기이며, 제2단계는 1971년부터 1985년까지로서 일본연구의 기반형성기이며, 제3단계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로서 연구자의 양적팽창에 기초하여 질적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이다.

예를 들어 정치학의 분야에서 1945~1970년은 5명 정도의 연구자만 있었지만, 1971~1985년은 매 5년마다 7내지 8명의 연구자들이 꾸준히 충원되어 연구자의 수가 23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상황은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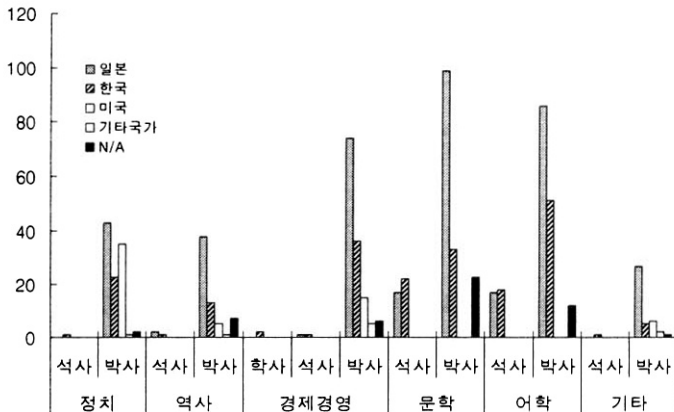
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급변한다. <표 1>을 참고로 한다면 현재의 연구자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40대에서 50대 중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한국 학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주로 1990년대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정치학의 분야에서는 1980년대 전반기와 비교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약 두 배에 가까운 15명이 신규 일본정치연구자로 충원되고 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충원이 이루어져 연구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90년대 전반기가 35명, 96년부터 현재까지가 19명이다. 1980년대의 후반기부터 전문적 일본정치 연구자수가 급증하여, 한국의 일본정치연구도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학이나 어학은 전 연령대에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는 것을 볼 때 문학과 어학이 1980년대까지 많은 연구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이 1980년대 이전의 일본 연구자들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령대



제3단계 이후의 연구자수 양적 증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일본과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일본연구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의 수도 점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의 총원상향과는 비교될 바가 아니다. 연구자들의 학위 취득 국가를 살펴보면 정치학에서는 일본과 함께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화과 어학에서는 미국 지역에서 학위를 하는 연구자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최종학위 취득 국가



이 시기는 방법론적으로 연구의 질적 비약이 모색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전 시기가 일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소개의 단계였다면, 이제는 일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종래 미국학풍의 도움으로 일본정치연구의 기반이 확립되었지만, 미국, 일본, 한국에서 각각 독특하게 훈련된 연구 방법들을 적절히 조화시키

면서, 사회과학적 일본연구를 위한 한국적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연구 영역면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각각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영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다양한 범위에 걸치는 전문적 연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이슈에서는 아직 지역학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본학의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외관계

한국의 일본연구(특히 정치학의 경우)의 특이한 현상은 대외정책 중에서도 한일관계와 방위정책에 대한 논의에만 치중되고 있는 점이다²⁾. 따라서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연구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 전전 일본외교의 경우 중요이슈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연관되어 제국주의 파시즘 외교정책과 방위문제 등의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국제정치 속에서 일본외교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분석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국내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소개가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전후 외교정책문제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주로 정책결정(policy-making)의 구조와 변수들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가령 특정한 정책의 내정적 기반이라든

2) 일본정치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 69명중 35명(58%)이 대외정치를, 그리고 33명(48%)이 국내정치를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방위 및 외교, 한일관계등 전통적 대외정책의 비중이 27명으로서 전체의 39%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조사연구에서도 대체적으로 밝혀진 바이며, 일반적인 통설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 대외적 구조로서 미일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초에 걸쳐 본격화되는 전후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른바 “second image” 분석법, 즉 대외정책의 내정적 원인탐색이 주요한 조류를 이루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이후에 새로운 연구자들이 출원되면서, 새로운 연구경향이 도입되는데, 그것은 미일관계와 일본의 국내 정치를 연동시켜 파악하는 관점, 즉 ‘second image-reversed’ 혹은 ‘two level game’ 접근의 변형들이 그것이다. 이 시기, 연구자들의 학위논문에는 이러한 시각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전과 전후를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부족하며, 미국과 일본의 이론적 관심과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에 비해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는 역사도 길뿐만 아니라, 비교적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분야의 주요이슈는 전전의 경우는 한국의 식민지화과정이 압도적이며, 전후의 경우는 한일 협정 등 정치문제, 양국간 경제관계 및 문화관계, 양국간 외교태도, 재일한국인 문제 등 시의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과거 양국간 경험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영역이며, 암묵적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의 대외행위전반을 평가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 분야처럼 객관적으로 연구되기 어려운 분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듯 한일관계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전전의 일본제국주의 상이 그대로 투영된 극단적인 ‘일본경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의 구조속에는 현대의 일본도 전전과 마찬가지로 팽창주의적이고 한국을 종속화시키려는 음모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설혹 이러한 극단적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자들은 일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가 대다수이다. 이것은 일본의 불충분한 과거청산의 태도와 과거 경험에 의한 한국인들의 대일경계론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난점과 더불어, 19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한일관계의 문제는 일반적

인 일본의외교정책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외교정책의 주제는 전후의 방위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미일안보동맹, PKO(Peace Keeping Operation) 문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문제, 방위비와 방위력 증강 관련논쟁(FS/X논쟁 등) 등이 지속적인 이슈가 되어 왔다. 이 분야의 연구는 한국의 정책적인 관심과 연결되어 기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류에 부합되어 주장하는 논의가 많다. 이들의 기본적 경향은 일부의 논자를 제외하고 일본의 의식적 국방력의 강화(‘군사대국화’)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경향도 시기별, 연령별, 접근방법별로 약간씩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현재 60대의 연구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7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은 패권주의적 군사대국화(hegemonic military power)론의 이미지로 묘사되곤 하였으나, 80년대와 90년대 초에 들어 발표된 50대 정도의 연구자들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미일동맹하의 군사대국화, 즉 공동패권하의 군사력 강화론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90년대 본격적인 일본정치연구를 시작한 세대의 경우, 논의의 중점을 방위문제를 둘러싼 국내정치과정분석으로 옮기면서 군사대국화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초기 세대일수록 과거 한일간의 역사와 일본의 방위문제를 연관짓는 경향이 크고 경계심을 갖는 반면에, 젊은 연령층일수록 국내정치과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강조하면서 중심적 경향과 그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큼을 보여준다.

이처럼 일본 대외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한일관계와 방위문제가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문제점은 대중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일반적 상식’을 추수하는 경향과 더불어 일본의 권력을 아직도 제국주의적인 이미지로 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일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과 학문적인 고려는 결여될 수밖에 없다.

3. 국내분석

국내적인 분석에서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일본 문화와 일본의 정치과정 그리고 정치경제에 관한 관심이다.³⁾ 우선 일본문화에 관한 관심은 일반인의 일본에 대한 호기심이 대학의 인문학적인 관심과 결합되면서 일본학이 형성된 이래 지속되어온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문화론의 관심은 일본형 집단주의, 근대화와 문화관계에 관한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논의는 젊은 세대의 학자들 보다는 주로 50~60대 이상의 초기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의 접근경향이 발견된다. 하나는 주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일본 문화 긍정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논의이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경제발전에 대한 문화적 요인의 상당한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 가지 접근은 이 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것으로서,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일본 문화 자체의 특수성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가령 서구적 보편성과 일본적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 일본문화의 이중성, 혹은 모순을 논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일부는 ‘니혼진’(Nihonjin)론적 일본

3) 정치문화 및 참여(political culture and participation) 분야를 제외하면, 세대가 젊어질수록 전후의 정치과정, 정치경제, 지방자치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령 50대와 60대의 경우, 국내정치에의 분포정도는 41%~44%이며 주요관심분야는 정치과정 및 정치문화였지만, 30대와 40대의 경우 국내정치에의 분포정도는 47%~53%로 성장하며 주요연구분야 또한 정치과정, 정치경제, 지방자치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학자들의 수적인 층위에 따라 관심영역이 다변화되면서도, 일본의 국내정치, 즉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 특수(우월)주의에 대한 추종이기도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문화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일본은 문화적 측면에서 보편적 기준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보편주의적 정치대국으로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문화론에 대한 논의는 일본문화의 특수성의 개념과 결합하여 일본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전후 일본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적인 분석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주로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원인분석에 많은 비중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민주적 안정질서를 가져다 주었고, 일본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모델'로서 취급되었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론이 논의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모델을 논하는 아니러니컬한 상황이 형성되었다. 한편 이 분야의 연구경향은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크게 변화한다. 1993년 일시적으로 '55년체제'가 붕괴하면서, 일본정치의 이슈도 전환되어 자민당 장기집권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민당의 장기집권 붕괴가 야기할 정책적 변화전망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향후의 전망과 관련하여 '55년체제'라는 기본개념을 기준으로 한 현대 일본 정치사의 시기구분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기초적인 연구가 결여된채 정책적이고 일시적인 연구로 끝나는 경향이 농후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체제에 대한 논쟁이외에도 일본의 엘리트, 리더쉽의 역할, 제도의 분석, 일본적 신보수주의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국내분석 중에서 1980년대 말부터 양적으로 팽창된 부분이 정치경제적인 연구이다.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이슈들은 공공정책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예산결정, 정-재계관계, 관료제문제, 정책형성과정의 다양성 등이었으며,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정-관-재라는 기본행위자간

관계, sector별 구체적 정책형성, 규제완화, 관료제간 관계, 정치변화와 정치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산업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정치경제분야로 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자들이 귀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국내의 관심증대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가세되면서, 현재 상당한 연구역량이 조성되었다. 한편 일본산업정책에 대한 90년대 전반기의 연구는 일본을 경제적 성공사례로서 인식하여, 하나의 '모델'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경우 산업정책이 잘 작동된 거시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 중심론, 국가와 시장의 상호작용론 등 구미 및 일본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던 인식틀이 반복되는 듯한 인상이 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이 일본의 고도성장을 따라잡으려는 입장으로 한국은 일본을 Catch-up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중반이후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된 것이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영역은 1990년대의 장기 불황론, 일본적 경영시스템연구, 금융시스템 개혁 연구 등이다. 특히 장기불황에 관한 원인이든지, 일본 정부의 불황대책 등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처음의 일본 장기불황에 대한 연구는 방관자적 입장이나 혹은 일본이 불황에 빠진 것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호기라고 보는 식의 관점들도 있었다. 현재에는 장기 불황의 경험이 학문적인 비교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의 교훈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불황의 원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이전의 일본 모델론과 연결되지 못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시스템을 평가할 때 미국의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곧 미국시스템을 우위로 평가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식 시스템의 장단점을 찾아 객

관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분석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구미와 일본학계의 정형화되고 모델화된 산업정책론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정책패턴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인식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연구가 얼마만큼 학문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국내분석은 1980년대 말부터 연구자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주제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및 일본에서의 연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서류에 영합한 연구나 미국과 일본의 연구성과의 소개에 치우친 연구가 아직은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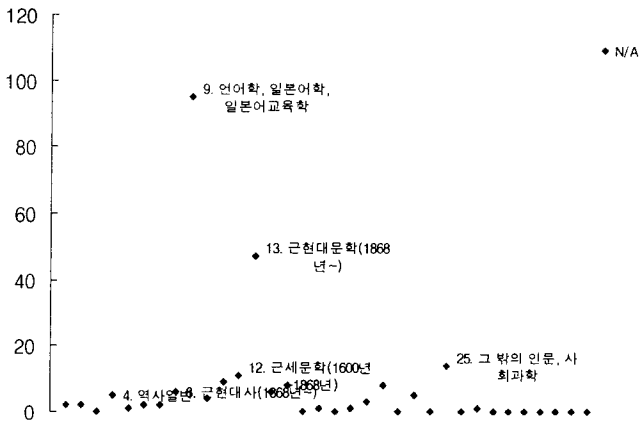
III. 일본학 교육의 문제점

현재 일본학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전에 일본학 교육을 담당해 왔던 일어일문학과는 점점 변화되어 어학과 문학이외에도 일본 경제 혹은 정치 등을 부수적인 교양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수년에 걸쳐 각 대학의 종래의 일어일문학과와는 다른 일본학과와 국제대학원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학과 설치의 효시는 1979년의 계명대학에서 시작되었지만, 계명대 일본학과 이후로는 한동안 신설 일본학과가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신설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대학원도 지역연구의 교육을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최근의 경과를 통해서 나타난 일본학과와 국제대학원의 지역학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의 학계에서는 소위 지역학이라는 학문방법 자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도 지역학

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독자적인 학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서양에서는 일찍이 소위 동양학 등 지역연구의 체계적인 학문화가 시도되어 왔었다. 동양에 대한 관심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의 틀을 크게 벗어나 있지는 못하더라도 16세기 이후 단순한 오리엔탈리즘이 아닌 오리엔탈 스테디로 발전, 즉 이국적인 취미로부터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동양학의 추구가 연구자들의 학문 자세 속에서는 나름대로 의식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지역학 교육의 특징은 한편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교육을 반복하거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사회과학의 이론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어학능력만 보완하거나 통역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지역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안이한 풍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회과학적이고 인문과학적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지역에 대한 여러 지식만을 암기한다든지, 또는 사회과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학이나 일본에 이해가

〈표 3〉 주요 연구분야



부족한 절름발이식 교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대학의 독립학과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역학의 개념설정과 새로운 학문영역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둘째로 일본학이라는 새로운 분과를 둘러싼 적절한 기능적인 전문화가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역사학 분야의 일본제국주의 비판이나 혹은 순수한 일본어, 일본 문학을 제외하고는 일본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기피되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아마도 그간의 일본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양식은 학계보다는 오히려 한일국교수립이후 무시할 수 없게 된 일본 경제에 대한 관료와 기업가들의 눈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대국의 영향력이 한국민에게 알려지고, 다양한 대중문화가 한국의 젊은층에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일본 사회나 문화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급작스런 요구와 부응하여 일본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일본학과와 국제대학원이 형성되었지만, 적절한 기능적인 전문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분야나 인문분야와 같은 기초 사회과학이 당장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근시안적 정책 기조는 대학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를 하나만 들면 지역학과 통상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립된 9개 국제대학원의 교원 충원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는 사실상 배재되었으며, 경제학, 경영학전문가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국제대학원간의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하게 됨으로서 모든 대학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대학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일본학과와 졸업생이나 국제대학원의 일본학 전공자들이 자신의 이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취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취업한 직장은 일본과는 무관한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으며 극히 일부만이 일본자본계 기업이나 무역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다. 더욱이 그 경우에도 일본전공이라는 이유보다는 일본어 능력이 평가되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일본어 실력면에서도 다양한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일본학과보다는 기존의 일어일문학과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어 학원이나 통역 번역의 일본어 시장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지역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면 일본학의 현실적인 의의는 부정할 수 없더라도 그 실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진정한 지역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미약한 상태를 인정하고 보면 지금의 일본학과 국제대학원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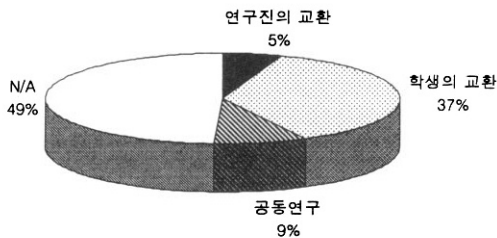
IV. 일본학에 대한 발상의 전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지역학에 대한 시장적인 요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적인 연구 영역과 교육의 현황은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걸돌고 있는 느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향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로서는 80년대 후반에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상 당연한 결과인데,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2000년 이후의 일본연구자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비하여 일본학

연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주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관심의 저하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일본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도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론 및 인식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일본 자체의 필요성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학과나 혹은 국제대학원내의 일본 지역연구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일본학과에 상응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대학원의 지역연구 프로그램도 실무능력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양성이 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독창적인 연구를 위한 한국에서의 일본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일본에 있는 기관과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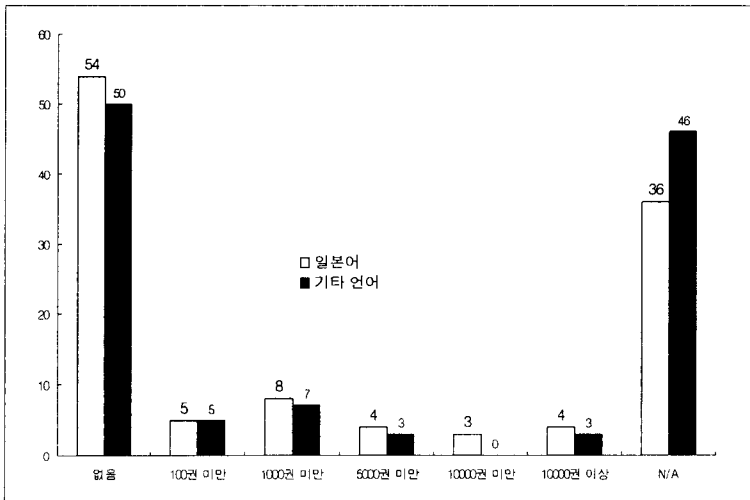
둘째 일본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infrastructure) 구축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관련 장서를 포함한 기본적인 연구시설과

기본적인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질 높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현재 까지 일본과의 교류를 보더라도 49%의 기관이 교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경우 개별적으로 일본연구와 교육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들도 상호간의 연계와 협조에 의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 장서를 갖추는데 있어 전문분야를 분담하여 구입을 한다든지, 어학연수나 연수를 위한 컨소시엄방식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에서 현재의 일본 관련 도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없는 경우와 2만권 이상있는 기관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컨소시엄 형식의 대학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일본관련 도서(서적)



따라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간 혹은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 간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각각 연구시설과 자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력 등에서 교류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학 교육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일본학과와 국제대학원의 지역연구자들이 공동 토의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일본학과가 하나의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수렴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역학의 방법론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논의가 이루어짐으로서 비로소 그 후 각 학과의 독자적 특성의 모색도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각 대학 일본학과간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학과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의 장을 상설화하여 보편적인 학사운영의 틀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간의 중복투자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넷째, 일본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초를 확고히 갖출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지역학으로서 일본학 교육과 연구는 현재 본격적인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시류에 영합하는 연구나 전시성 사업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의 기초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학 교육과 연구를 정상화시켜나갈 기금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일본학을 위한 기금확보 여부에 따라 일본 연구와 교육이 부침을 겪어왔다. 예컨대 일본학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도서 구입은 물론이고, 일본 전문가를 교수로 확보하는 것도 기금의 유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북미지역에서 일본학이 오늘날처럼 성장하는 데는 Japan Foundation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기금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런 상황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The Problems of Japanese Area Studies in Korea

JIN, Chang Soo

Director,
Japan Center, Sejong Institute

Problems that restrict the studies and education of Japanese Area in Korea can be classified roughly into two. First, the program of Japan studies is still reproduced expensively within narrow scope of the studies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cond, the logic of nationalism and anti-Japan is reflected in the studies indirectly, interrupts objectivity. From 1990s, Japan studies can be diversified in the specialized area, with several experts who cover diverse areas. In spite of the promotion of variety in specialized studies, the progress of area studies as the issue of the studies is not regularized yet. Instead, it seems that area of academic studies and conditions of education do not answer the expectation of the society and just waltz around. To improve this condition, some counter plans should be made up.

Key Words: Japan Studies in Korea, education of Japan Studies,
Japan Studies.